



창세기 1:1~13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찬양하기

기뻐하며 경배하세 (새 64, G) 창조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경배와 찬양, G)

Focus |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마음 열기 🍃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인도자를 위한 예화 어느 목사님의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교회학교에 다녔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너무나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가 시비조로 말하는 것입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며? 하나님이 무슨 소금쟁이도 아니고 한 발 빠지기 전에 한 발 딛고, 또 한 발 빠지기 전에 한 발 딛고 그렇게 물 위를 걸었다는 거냐? 말도 안 된다.” 그 말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야! 네가 말하는 건 사람이고,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깟 물 위를 걷는 게 대수였어?” 그랬더니 친구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라는 말씀이 믿어진다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그분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든 역사와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 열기 🍃 본문 읽기 창세기 1:1~13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구약의 첫 책인 창세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함께 모세 오경으로 불립니다. 모세 오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기록된 것으로, 그중 창세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그들이 선택을 받았고, 그 시작은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 줍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첫 단어를 그 책의 이름으로 삼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는 히브리어 ‘베레쉬트’는 ‘처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또한 창세기의 영어 제목은 ‘Genesis’인데, 헬라어에 어원을 두는 이 단어에는 ‘기원’, ‘시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글 제목인 ‘창세기’는

‘세상이 지어질 때의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창세기는 인류와 우주와 모든 것의 처음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기도 합니다. 우주의 기원(1:1), 인류의 기원(1:27), 안식일의 기원(2:2~3), 혼인의 기원(2:22~24), 범죄의 기원(3:1~7), 살인의 기원(4:8), 문명의 기원(4:16~21), 민족의 기원(10:1~32), 이스라엘의 기원(12:1~3) 등 다양한 주제의 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1장은 우주의 기원을 비롯한 창조의 시작을 보여 줍니다. 세상 모든 것의 시작이 무(無)로부터 창조(Creatio ex Nihilo)되었으며, 그 창조의 주관자는 모든 기원의 기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 줍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 줍니다. 성경은 모든 시작의 근원이 누구라고 선언하나요?(1절)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해설 1장은 모든 시간과 공간과 역사와 인류의 시작이 어디에서 말미암았는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의 첫 단어인 ‘태초’에는 단순히 과거의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가 시작된 그때를 의미합니다. ‘태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베레쉬트’가 ‘이제 막 흐르기 시작한 시간의 출발’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성경 66권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는 창조의 주인이요 동시에 시간과 공간, 생각과 경험 등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태초’라는 시작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천지’,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지엽적 공간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 곧 모든 만물을 가리키는 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1절 후반절의 ‘창조하시니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라’는 ‘무(無)로부터의 창조’를 의미하며, 이는 사람에게서는 쓸 수 없는 신적 용어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적용과 나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1절)라는 구절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종교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신과 그것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와 신은 유한합니다. 유한하다는 것은 시작과 끝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작을 시작하신 분이기에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성경의 처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無)의 상태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은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다는 사실은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확신은

우리 스스로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느끼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라는 말씀을 삶의 근간으로 삼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삶을 맛볼 수 있습니다.

관찰과 묵상 **2** 하나님은 첫째 날과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에 각각 무엇을 창조하셨나요?(3~13절)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고(3~5절),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그 위와 아래를 구분하셨습니다(6~8절),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구분해 만드셨습니다(9~13절).

해설 본문은 하나님이 창조의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무엇을 만드셨는지 기록합니다.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이 이르시되'입니다(3절). 1장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열 차례나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보여 줍니다. '빛이 있으라'(3절), '...물과 물로 나뉘라'(6절), '천하의 물이 한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9절),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11절)라는 명령에 대한 반복된 반응은 '그대로 되니라'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피조 세계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외에 본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도 반복됩니다. 이 표현은 1장에 일곱 차례나 등장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눈으로 보기에 좋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피조물들이 만들어졌음을 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깊은 애정과 기쁨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당신의 질서를 따라 보시기에 좋도록 지으셨습니다.

적용과 나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말씀이 살아 있고 능력이 있어 내 삶에 역동함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하나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 그대로 되니라."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사복음서에서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하인의 병을 고쳐 주시길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백부장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마 8:8). 이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마 8:10)라고 하시며,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마 8:13)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즉시 백부장의 하인은 병에서 놓임을 받았다고 마태는 증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드러나는 이유는 피조 세계가 그 말씀에 순종하

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에 반응하는 순종입니다. 그럴 때 창조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 다지기

천지 창조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드러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18:14)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창조 현장에 나타났던 그분의 크신 능력을 일상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 장면조차 하나님을 전부 담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며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힘입니다.

TIP 리더는 오늘 나눈 말씀이 기도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1개 혹은 2개 모두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창조의 기적을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TIP 이렇게 구성원들과 한목소리로 기도한 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따라 읽으며 마무리하고, 중보기도(함께 기도하기)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감당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큰 문제를 만나 두렵고 위축될 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제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 비정상적인 규모의 큰 이익을 얻으려 금전을 투입하는 투기 행위가 근절되고, 생산 활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건강한 경제관이 정착되도록 기도합니다.
- 인도양에 위치한 몰디브는 인구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신봉하며, 악령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이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도록 기도합니다.

찬양, 찬금, 찬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마음에 새기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창세기 4:1~15

죄를 다스리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 찬양하기

다 찬양하여라(새2, G) 완전하신 나의 주(경배와 찬양, F→G)

Focus |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참된 예배자로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마음 열기 🌱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인도자를 위한 예화 18세기 영국 신학자요 탁월한 설교자 조지 헛필드는 매일 밤 열다섯 가지 항목으로 자신의 삶을 엄격하게 점검했다고 합니다. '첫째, 개인 기도예 열심을 내었는가? 둘째, 작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했는가? 셋째, 매시간 부르짖었는가? 넷째, 대화하기 전이나 후에 나 자신이 행하려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지 심사숙고했는가? 다섯째, 기쁜 일이 있을 때 즉시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여섯째,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는 일을 잊지 않고 수행했는가? 일곱째, 모든 일을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또한 반성해 보았는가? 여덟째, 내가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을 감당하거나 행할 때 뜨거운 열심이 있었는가? 아홉째, 말하거나 행할 때 은유하고 명랑하고 불임성 있는 태도를 견지했는가? 열 번째, 다른 이들에 대해 교만하거나 허탄하게 굴거나 참지 못하거나 투기하지 않았는가? 열한 번째, 먹고 마실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가? 또 잠자는 일에 절제가 있었는가? 열두 번째, 율리엄 로의 규칙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시간을 드렸는가? 열세 번째, 연구하는 일에 부지런했는가? 열네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해 불친절하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는가? 열다섯 번째, 나의 모든 죄를 고백했는가?'

이 열다섯 가지 항목은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 스스로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말씀 열기 🌱 본문 읽기 창세기 4:1~15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나무 과실을 따 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해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고, 이로써 모든 불행이 인간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시며 그들이 반드시 겪게 될 고통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와에게 임신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고, 그 고통의 수고가 있어야 자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3:16). 아담에게는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3:17~19). 그 말씀대로 하와는 산고를 겪은 후 가인과 아벨을 얻게 되었고, 아담은 땀 흘려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 역시 땀을 흘려야만 소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농작물을 키워 소득을 얻는 농업을,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업으로 삼았습니다. 한편, 가인과 아벨이 그들의 소득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을 통해 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해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당장께 나아올 길을 열어 두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는 후손의 삶에도 이어져 형제 살인이라는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가인과 아벨의 직업은 무엇이었으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각각 무엇이었나요?(2~4절)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해설 세월이 흘러 가인과 아벨이 각자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농업을 하던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고, 목축업을 하던 아벨은 양과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단순히 제물의 차이 때문에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다른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이유가 자세히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중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에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제물의 차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4~5절). 이는 제물과 제사드리는 사람이 동일시되기에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고,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은 그렇지 않았음을 보여 줍니다.

적용과 나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믿음으로'(히 11:4)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을 통해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의 반대 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형식과 전통에 맞춰 예배하는 것입니다. 형식과 전통에 맞춰 예배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의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율법의 예배가 아닌 은혜의 예배, 문자의

예배가 아닌 영의 예배입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매 순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가득 한 예배, 기복 신앙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믿음의 예배로 인정하십니다. 예배의 홍수 시대라는 말을 절감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찾으셔야 할 만큼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마치 처음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그리고 인생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처럼 우리의 예배를 믿음의 예배로 여기시고 기쁘게 흠향하실 것입니다.

관찰과 묵상 2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어떤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했나요?(5~8절)

먼저 가인의 안색이 변했고, 이후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해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자 가인은 분노합니다. 그는 먼저 동생의 제사만 받으신 하나님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아벨에게 분노했습니다. 상대적 시기와 질투심이 폭발쳐 오른 것입니다. 이에 가인의 얼굴색이 점점 변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아벨을 분노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믿음 없음은 안중에 없고 하나님과 아벨을 향해서만 분노의 화살을 쏙니다. 이에 하나님은 "죄가 문에 엮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7절). '죄가 문에 엮여 있다'는 표현은 사나운 맹수가 먹이 앞에 두고 잔뜩 힘을 모아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은 사탄이 가인을 잡아먹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 그 기회를 사탄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인의 분노는 아벨을 살해하는 것으로 표출됩니다(8절). 결국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지배된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되고 맙니다.

적용과 나눔 나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나 사람을 향한 분노가 생길 때 어떻게 하나요? 성도로서 자기심과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등장할 만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화를 내거나, 기물을 파손하거나, 심지어 살인하는 일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감정의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 분노와 폭력, 살인이라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합니다.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라고 말합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것처럼 사탄이 감정의 틈을 보이는 사람을 찾아와 그를 자신의 휘하에 두고 악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죄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없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함께하시는데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에게 어떠한 틈도 내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육신이 바라는 대로 마구 행동할 것

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맡겨야 합니다.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인과 달리 죄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 다지기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외적 예물이 아닌, 내적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참된 예배자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한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막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봅니다. 사탄에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유일한 대상이시요 이유 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TIP 리더는 오늘 나눈 말씀이 기도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1개 혹은 2개 모두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 매 순간 믿음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 사탄에게 감정의 틈을 내어 주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TIP 이렇게 구성원들과 한목소리로 기도한 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따라 읽으며 마무리하고, 중보기도(함께 기도하기)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진정으로, 영으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연약한 감정까지 주님께 모두 내어 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1.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영혼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국민이 사랑하도록 기도합니다.
2. 옛 소련 영토를 되찾겠다는 야욕으로 주변 국가에 무자비한 공격과 패권주의 행보를 보인 러시아가 돌아와,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마음에 새기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낚을 물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 4:7



창세기 9:1~17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찬양하기

오 신실하신 주 (새 393, 단→D) 내 평생 사는 동안 (경배와 찬양, D)

Focus |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 열기 ▶ 한 주간의 삶과 O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인도자를 위한 예화 2세기 중반 아시아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던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탁월한 영적 리더십으로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오랜 시간 봉사했는데, 마르시온주의, 영지주의에 맞서 정통 신학을 정립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 박해가 극심해지자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하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폴리갑은 주변 사람들의 권유를 거절하고 86세의 고령에 로마 당국에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의연한 모습과 기쁨에 감동한 총독은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제물만 드리면 살려 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라.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러면 내가 놓아주겠다”라고 말하는 총독에게 폴리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80년에 6년을 더해 나는 그분을 섬겼소.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소.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에게 욕을 한단 말이오.” 그는 산 채로 묶여 화형을 당하면서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폴리갑의 순교는 로마 제국 전역의 교회에 전해졌고 그의 신앙은 많은 기독교인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오로지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잡았습니다. 그가 붙들었던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 지금까지도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내 삶에서 지금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말씀 열기 ▶ 본문 읽기 창세기 9:1~17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창세기 6~9장에 등장하는 노아 이야기는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나라하게 드러나는 타락한 인류의 모습은 집단적인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주며,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악의 실상을 알려 줍니다. 한편으로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한 가족을 소개하며 그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명확하게 보여 줍니다. 창세기 6장 8절의 ‘노아는 여호와께 은

혜를 입었더라’라는 표현은 이 역사의 핵심이 됩니다. 또한 범죄와 타락으로 실패한 듯 보이는 인간 창조의 역사를 구원이라는 시각으로 새롭게 조명합니다. 이 사건 이후 성경은 더욱 명백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화두로 삼아 전개됩니다. 무엇보다 노아의 이야기는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이 직접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을 새롭게 세우시되, 창조 때의 축복과 명령을 발전시키고 인류와 세계에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과 이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창 12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가 됩니다. 심판 이후 새로운 세계 질서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종말론적으로도 중요한 이미지를 제공해 줍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가요?(1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설 노아와 그 가족은 홍수로 인류가 멸망한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담과 같이 앞으로 태어날 후손의 머리가 되는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이제 이 말씀은 전 인류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실 것이며, 선한 뜻과 의도로 다루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을 뜻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지라고 명령하십니다(1절). 1~7절은 창세기 1장 28~29절의 명령을 재차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정복하라, 다스리라’라는 표현이 이어지지만, 본문에서는 ‘땅에 가득하여 그중에서 번성하라’는 표현으로 강조됩니다(7절). 땅을 지배하는 권한으로 선하게 다스리고 돌보아야 하는 아담의 사명이 실패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한 질서와 권한을 부여하십니다(2절). 그리고 땅 위의 모든 생물에게도 하나님 언약의 복을 허락하십니다(17절). 이는 창조 질서를 수호하고 선하게 보존해야 할 인간의 의무를 새롭게 구성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 창조 세계를 돌보고 다스린다는 측면에서,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일은 무엇인가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보다 우월한 위치를 부여하셨다는 것은 마음대로 욕심에 따라 지배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자연을 돌보시듯 다음 세대와 자연 세계를 선하게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창조 질서는 인본주의적 사상과 물질주의적 가치관, 쾌락과 욕망이 주도하는 문화에 의해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인간을 과물질주의적 가치관, 쾌락과 욕망이 주도하는 문화에 의해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한 몸으로 부르신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 문화를 가르쳐 주는 것은 창조 질서와 가치를 지키는 하나의 중요한 실천이 될 수 있

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측면에서 환경보호도 새롭게 조명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길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눈앞의 편리와 소비보다 장기적인 환경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여러 실천이 동반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을 담당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관찰과 묵상 **2**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요?(11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고,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언약을 세워 말씀하셨습니다.

해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언약으로 보증하십니다. 언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내용에 동의하고 형식적 절차를 엄숙하게 밟아 서로에 대한 의무로 함께 묶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아와 맺으시는 언약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가장 앞에서 그분 자신을 언약 아래 묶으신 행위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이며 은혜로운 성품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이는 8장 21~22절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내용을 언약적 행위로 인간에게 풀어내시는 것입니다. 홍수를 '일으키다'라는 표현(6:17)은 언약을 '세우다'(6:18; 9:10~11, 17)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제 하나님 언약의 복이 홍수 심판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이 언약은 죄로 인해 실패한 인간이 받을 심판에 대한 보증이 됩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홍수 형태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주시고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증거(Sign)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무지개에는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와 영원한 구속적 사랑을 보여 주는 가시적인 존재로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심판과 구원,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는 결국 약속의 후손이시요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합니다.

적용과 나눔 노아에게 주어진 언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망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심판 날을 위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몇 가지 언약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노아 언약 역시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전형적인 은혜의 언약 형태와 내용을 보여 줍니다. 노아 언약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언약이라는 점, 심판이 배경이지만 보호와 구원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 언약의 영원성과 신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한 언약이라는 점에서 특징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후손에게 주신 언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앙적인 도전을 줍니다. 첫째, 무엇보다 구원은 행위와 공로가 아닌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창세기에서 노아는 의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강조됩니다.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주권이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으로 이끕니다. 둘째, 노아 언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심판 날에 구원의 방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삶의 여러 가지 풍랑 속에서 평안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노아 언약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 다지기

하나님은 노아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명한 이미지로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함이 극에 달한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아울러 노아와 방주 이미지는 한 사람을 통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의 길과 계획을 보여 줍니다. 이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성취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노아 이야기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땅에 가득한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의인의 삶을 살도록 도전합니다.

TIP 리더는 오늘 나눈 말씀이 기도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1개 혹은 2개 모두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 창조 가치와 질서를 지키며 창조된 세계를 선하게 돌보는 청지기 가 되도록
-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TIP 이렇게 구성원들과 한목소리로 기도한 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따라 읽으며 마무리하고, 중보기도(함께 기도하기)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창조 때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 사명을 기억합니다. 창조 질서를 지키고 자연을 선하게 돌보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1. 스마트폰을 쥐고 자란 세대 중에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가 많습니다. 정부가 문해력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힘쓰도록 기도합니다.
2. 서아프리카의 종라족을 위한 '종라어 성경'이 이슬람교 국가 감비아에 전달되었습니다. 종라어 성경을 접한 이들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합니다.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마음에 새기기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창 9:17



창세기 13:1~18

양보하고 배려하는 믿음

하나님 찬양하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새 546, B*→A)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경배와 찬양 A)

Focus | 성도는 세상 욕망이 아닌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갑니다.

마음 열기 🌻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인도자를 위한 예화 목회자가 되려고 준비하는 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진로를 바꾸어 주님의 종이 되는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이를 반대했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나와 홀로 생활하며 신학교 입학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가 집을 나올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창 28:15)라는 말씀을 주시며 위로하셨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작은 방 한 칸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지도 없고, 가족도 없었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에 합격하고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신학교를 졸업할 때 예배당 한구석에서 기도하던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 중에 가만히 지난 삶을 돌아보니 어느새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아 가족이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모두 채워 주고 계셨습니다. 그는 처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견고한 신앙은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때 조금씩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말씀 열기 🌻 **본문 읽기** 창세기 13:1~18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아브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완전히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람이 약속의 땅에 온전히 정착할 때까지 그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십니다. 12장에서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람은 자신의 아내 사래를 누이라 속이며 바로 앞에서 목숨을 보전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 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수치를 당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은 바로와 그 집엔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바로로 하여금 아브람을 애굽에서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아브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씩 경험하면서 신앙적으로 조금씩 성숙해 갑니다. 네게브(1절)는 ‘남방’(12:9)과 같은 말입니다. 아브람 일행은 가나안 남쪽에서 북쪽의 벨엘까지 목축을 위해 풀을 따라 이동하기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의 양을 키우기에는 초지가 부족했고, 이로 인해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람은 이 갈등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며 문제를 성공적으로 풀어 나갑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많은 가축 탓에 목자들이 땅을 두고 서로 다투자, 아브람은 롯에게 어떤 제안을 했나요?(8~9절)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하지 말고 땅을 선택해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브람은 롯이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땅을 선택하겠다고 말합니다.

해설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의 소유가 매우 풍족했습니다(2절). 특히 가축이 많았던 아브람은 가나안 남쪽 네게브 지방부터 북쪽 벨엘까지를 오가며 목축을 했습니다. 많은 양과 소는 아브람의 부를 상징하기도 했지만, 가축을 위한 물과 목초를 확보하기 위해 늘 풀이 많은 곳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조카 롯 역시 소유가 풍부했기에 두 집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7절). 다툼을 원치 않았던 아브람은 화평을 위해 롯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8절의 ‘우리는 한 친족이라’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에서 ‘우리’, ‘사람’, ‘형제들’이란 단어의 나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다투지 말아야 한다. 하물며 형제들이라’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은 화평과 화해를 선택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양보합니다.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때 롯은 자신의 선택권을 최대한 이용해 ‘온 땅에 물이 넘쳐하고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요단 동쪽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합니다(10절). 그러나 성경은 그 땅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며 소돔을 ‘여호와 앞에서 악한 큰 죄인들이 사는’ 성으로 소개합니다(13절). 아브람의 의롭고 관대한 제안과 롯의 탐욕적이고 근시안적인 선택이 극명한 대립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적용과 나눔 형제 혹은 이웃 간의 화평한 관계를 위해 내 소유나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보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아브람의 제안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손해 보는 방법이었습니다. 좋은 쪽을 선택할 권한을 상대에게 주었기 때문에 자신은 덜 좋은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롯은 그가 보기에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하고 아브람을 떠나갑니다. 이를 두고 일부 학자는 아브람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을 빼앗길 수도 있는 위험한 제안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롯의 탐욕적 선택

택에 더욱 초점을 두면서 그 땅의 비옥해 보이는 겉모습과 죄악으로 인해 심판이 가까운 영적 실체를 대비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 중요한 가치를 붙잡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기보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양보하고 섬기는 삶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 땅에 온전히 임합니다.

관찰과 묵상 **2**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요?(14~17절)

보이는 땅을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줄 것이고,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설 14절은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라고 시작하며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시는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롯은 아브람의 제안에 따라 이기적인 욕심을 선택해 아브람을 떠났고, 그 결과 아브람은 비옥한 땅으로 갈 기회를 잃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 지금 있는 땅의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땅을 모두 아브람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14, 17절). 일어나 종과 횡으로 그 땅을 다녀보게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땅을 사고팔 때 새 주인이 살 땅을 밟는 의식을 행하듯, 가나안 땅이 아브람의 소유가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세겜 땅 모레 상수리 앞에서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12:7). 하나님은 아들이 없던 아브람에게 그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는 복을 재차 약속하십니다(16절).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됩니다. 목초지를 놓고 다투는 상황에서 아브람과 롯은 동일하게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의 욕심을 따라 멸망의 도성을 선택했고,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며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적용과 나눔 하나님은 연약한 내 믿음을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한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아브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때마다 그의 믿음도 점차 성장해 갑니다. 갈대아 우리 땅을 떠날 때만 해도 그는 흔들리는 유약한 믿음 위에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땅을 떠나 위기 상황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믿음이 한 단계씩 도약하는 중요한 순간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갈대아 땅에서, 가나안에 도착한 후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 아래서, 롯이 떠난 벤텔과 아이 사이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계속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확실성과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

속을 계속 붙드는 사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믿음이 굳어지도록 모든 상황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말씀 다지기  의롭고 관대한 제안을 한 아브람과 탐욕적이고 근시안적인 선택을 한 롯이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습니다. 때로는 여러색이 보이는 선택일지라도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양보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모든 상황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그의 앞길에 큰 은총을 예비하십니다. 복된 미래는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매사에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약속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TIP 리더는 오늘 나눈 말씀이 기도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1개 혹은 2개 모두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도록
-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며, 하나님을 날마다 더 신뢰하는 삶을 살도록

TIP 이렇게 구성원들과 한목소리로 기도한 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따라 읽으며 마무리하고, 중보기도(함께 기도하기)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택하신 백성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선택의 순간에 저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 함께 기도하기 
1. 교회가 코로나19 시대를 힘겹게 지내 온 사람들에게 위로와 역할을 잘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가운뎃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탈레반의 위협 속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드리고 D국 지하 교회에 주님의 보호와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생명의 삶』 179쪽 '땅끝에서 온 편지' 참조).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마음에 새기기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창 13:14